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인의 서구 심리학 수용* -니시 아마네와 엔용징의 ‘mental philosophy’·‘psychology’ 번역을 중심으로-

이 대 승**

한글 요약

이 글은 조셉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1857)에 대한 니시 아마네(西周)와 엔용징(顏永京)의 번역서를 중심으로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인의 서구 심리학 수용 양상을 탐색하였다.

동아시아에 최초로 번역된 서구 심리학서는 조셉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이다. 이 책은 일본의 니시 아마네에 의해 『心理學』(1875~76)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다. 이 책이 동아시아 최초의 서구 심리학 번역서로, 니시 아마네가 여기서 사용한 ‘심리학’ 어휘는 ‘psychology’의 번역어로 현재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그가 사용한 ‘심리학’은 본래 ‘심리철학’의 약칭으로서 ‘mental philosophy’의 역어이고, ‘性理學’이 ‘psychology’의 역어였다. 조셉 헤이븐의 책은 중국에서 엔용징에 의해 『心靈學』(1889)로 번역된다. 여기서 엔용징은 ‘mental philosophy’와 ‘psychology’를 모두 ‘심령학’으로 번역한다. 니시 아마네는 전통 유교 사상을 토대로 서구 심리학을 비교 해석하고 번역어를 선택한 반면, 엔용징은 선교사로서 신학을 지적 배경에 두고 서구 심리학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번역어를 채택한다. 니시 아마네와 엔용징의 방식은 수용자 혹은 번역자의 학적 토대에 따라 역어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시 아마네 이후 일본에서는 근대 학문으로서 신심리학이 점차 보급되고 정착되는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연구교수

데, 그 과정에서 ‘심리학’이 ‘psychology’의 역어로 자리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19세기 말에 일본의 ‘심리학’ 용어가 수용되어 20세기 초부터 널리 사용된다.

주제어: 조셉 헤이븐, mental philosophy, psychology, 니시 아마네(西周), 연용징(顏永京), 心理學, 心靈學

1. 서론

일반적으로 ‘심리학(psychology)’이라는 단어는 영혼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psyche’와 어떤 주제를 연구한다는 의미의 ‘logos’가 합쳐진 것으로, 심리학은 초기에 ‘영혼에 대한 탐구’라고 여겨졌다.¹⁾ 이와 달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심리학을 “행동과 정신과정의 과학적 연구”²⁾ 혹은 “행동과 정신과정을 연구하는 학문”³⁾이라고 정의한다. 사실 심리학의 정의는 연구주제와 함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했다. 심리학은 19세기 후반에 ‘정신과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 초에 심리학자들은 과학이란 관찰 가능하고 측정 가능한 사건을 연구하는 것으로 여겨 관찰 불가능한 마음에 대한 연구보다 관찰 가능한 행동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⁴⁾ 현대의 심리학 정의에는 이러한 사정이 반영된 것이다.

현대의 심리학은 서구 근대 이후 발전한 학문으로서 서구에서 발전된 방법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서구와 다른 유교 문화 전통을 지닌 동아시아에서 심리학은 어떤 방법으로 탐구가 가능한가, 혹은 한국적 심리학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한국사상에 관심을 보인 한국의 심리학자들은 초기에 전통사상이나 종교적 풍토 가운데 보이는 일부 현상과 개념을 현대 심리학적 이론과 개념을 동원하여 재해석하고 비교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 일부 연구는 전통사상에 대한 현대심리학적 논의를 통해 현대심리학의 이론적 발전을 도모하기도 하였고, 또 일부는 한국인 혹은 동양인이 지닌 심리문화적 특성을 설명하는 이론적 개념이나 틀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러한 연구는

1) 오세진 외, 『인간행동과 심리학』, 학지사, 2005, 12쪽.

2) Nolen-Hoeksema 외 지음, 정영숙 외 옮김, 『(앳킨슨과 힐가드의) 심리학 원론』(제16판), 박학사, 2017, 5쪽.

3) 윤가현 외, 『심리학의 이해』(제5판), 학지사, 2020, 19쪽.

4) 오세진 외, 앞의 책(2005), 12쪽.

현대 서양심리학의 부족한 점을 동양 유학사상에서 찾아내고자 하는 시도로 진행되기도 하였다.⁵⁾

전통시기 정신 혹은 마음의 이치에 대한 탐구는 주로 유교 전통의 심학적 사유를 통해 이루어졌다. 하지만 유교 전통의 사회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유교의 심학 전통은 단절되고, 서구의 심리학이 현대의 정신과 마음에 대한 학문으로 자리하게 된다. 전통 유교 문화에서 벗어나 서구 근대 과학문명이 사회 문화적 토대로 서 있는 현대에도 심리학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전통 유교 문화가 현전하던 시기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서구 심리학이 처음 수입될 때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이해했는가.

서구 심리학의 초기 수용 양상은 19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번역된 서구 심리학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번역된 서구 심리학서는 조셉 헤이븐(Joseph Haven, 1816~1874)의 *Mental Philosophy* (1857)⁶⁾이다. 이 책은 일본에서는 니시 아마네(西周, 1829~1897), 중국에서는 옌용징(顏永京, 1839~1898)에 의해 각각 『心理學』과 『心靈學』이란 명칭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번역 과정에서 현재 우리가 ‘psychology’의 번역어로서 사용하는 ‘심리학’ 어휘가 등장한다.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에 대한 니시 아마네와 옌용징의 번역은 서구 심리학이 동아시아에 유입될 초기의 동아시아 지식인의 대응과 수용 양상을 보여 준다. 이에 대한 고찰은 탈유교사회인 현대 동아시아 사회에 정신과 마음의 학문으로서의 심리학이 최초에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수용되어 왔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동아시아적 혹은 한국적 심리학을 이해하는 데 하나의 시사점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에 처음으로 번역된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와 당시 심리학에 대해 먼저 개괄한다. 이후 니시 아마네의 『心理學』과 번역 작업 및 옌용징의 『心靈學』과 번역 작업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동아시아 지식인의 초기 서구 심리학 수용 양상을 제시한다.⁷⁾

5) 한규석, 「한국적 심리학의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2002, 75~77쪽. 한편 현대 서양심리학의 부족한 점을 한국 유학사상에서 찾아내고자 했던 시도는 점차 확장되어 한국 유학의 심리학설을 고찰하고 한국 유교문화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살핀 『한국유학심리학』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한덕웅, 『한국유학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3.

6) 원제는 *Mental Philosophy: Including the Intellect, Sensibilities and Will*.

7) 국내에서 최초의 심리학 번역서와 관련된 연구는 보이지 않으며, 초기 ‘심리학’ 수용

2. 조셉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번역되는 서구 심리학서는 조셉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1857)다. 조셉 헤이븐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 어린시절부터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1839년 매사추세츠 애슬랜드에서 목사로 임명되어 1846년까지 교회를 섬기고, 1846년부터 1850년까지 하버드 교회의 목사로 지냈다. 이후 1850년 애머스트 칼리지(Amherst College)에서 정신 및 도덕 철학(mental and moral philosophy)을 담당하는 철학 교수가 되어 1858년까지 애머스트에 머물렀다. 1858년에 그는 시카고 신학교(Chicago Theological Seminary)에서 조직 신학 교수가 되고 1870년에 은퇴할 때까지 시카고에 머물렀다. 1870년 은퇴 후 강의와 강연 등을 행하다가 1873년에 시카고 대학의 정신 및 도덕 철학(mental and moral philosophy) 교수 대행으로 대학에 복직하고, 이후 그는 1874년 5월 사망하기 전까지 시카고 대학에서 복무했다.⁸⁾

조셉 헤이븐의 저술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책이 1857년에 간행된 *Mental philosophy: Including the Intellect, Sensibilities and Will*(이하 ‘*Mental Philosophy*’로 약칭)이다. 이 책은 헤이븐이 애머스트 대학 재직 시 학생들을 위한 강의 교과서로 저술된 심리학서이다.⁹⁾ 서문에 따르면, 조셉 헤이븐이 애머스트 대학에 재직하게 되었을 때 기존에 사용하던 ‘정신철학(mental philosophy)’ 혹은 ‘정신과학(mental science)’ 교과서는 당시 대학생들의 요구에 제대로 대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니시 아마네의 『심리학』과 엔용징의 『심령학』에 대한 연구는 각각 일본과 중국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자의 연구는 주로 佐藤達哉 編, 『(通史) 日本の心理学』, 北大路書房, 1997., 佐藤達哉, 『日本における心理学の受容と展開』, 北大路書房, 2002를 참고할 수 있으며, 후자의 연구는 楊鑫輝 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中國近現代心理學史』, 山東教育出版社, 1991., 孫小蕾, 「顏永京對近代西學傳播的貢獻」, 『國際漢學』2019(04), 2019., 閻書昌, 「顏永京對西方心理學引入及其漢語心理學術語創制」, 『南京師大學報』2012(04), 2012 등을 참고할 수 있다.

8) Alfred H. Fuchs, “HAVEN, Joseph (1816~74)”, *Dictionary Of Modern American Philosophers*, Bloomsbury Publishing, 2005, pp.1071~2.

9) 헤이븐은 *Mental philosophy* 저술 2년 뒤인 1859년에 정신철학의 내용을 보충하는 속편으로 학생들을 위한 두 번째 교과서인 *Moral Philosophy*(1859년)를 완성하여 출간한다. 이외 주요 저술로 *Studies in Philosophy and Theology*(1869), *History of Philosophy*(1876) 등이 있다. Alfred H. Fuchs, 앞의 글(2005), 1072쪽.

응하지 못하였다. 더불어 당시 미국에서 저술된 정신과학 서적들은 철학분야에 일정한 공헌을 하고 있었지만, 조셉 헤이븐이 보기에 그러한 공헌은 단지 심리학의 일부 논의에 한정된 것이었다.¹⁰⁾ 그는 기존의 정신철학 교과서의 부족한 점과, 자신이 강의를 통해 그러한 부족한 사항을 발전시킨 과정 등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은 대개 심리학(Psychology)이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분야의 오직 일부분만을 논하며,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주의를 ‘지적 능력(Intellectual Faculties)’에 국한시키고, ‘감정(Sensibilities)’과 ‘의지(Will)’를 배제한다. ... 그동안 말해져 온 욕구를 깊이 느끼면서, 내 코스의 초기에, 주의 깊게 준비하고 수업에 전달함으로써, 그 결핍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인가 행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 ... 그래서 점차 준비했던 강의들이 점점 더 교과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¹¹⁾

헤이븐은 당시 미국의 정신과학 혹은 정신철학이 ‘지적 능력’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자신이 강의를 통해 ‘감정’과 ‘의지’까지 다룸으로써 ‘심리학(psychology)’에 속하는 내용까지 전달했다고 말한다. 나아가 헤이븐은 정신과학과 관련된 책은 심리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그 속의 다양한 주제들을 과학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여겼다.¹²⁾ 당시 심리학의 내용을 채택하

10) Joseph Haven, *Mental Philosophy: Including the Intellect, Sensibilities, and Will*, Gould and Lincoln, 1857, pp. iii~iv. 이하 원문은 *Mental Philosophy*(1857)로 약칭.

11) “PREFACE”, “They traverse usually but a portion of the ground which Psychology legitimately occupies, confining their attention, for the most part, to the *Intellectual* Faculties, to the exclusion of the *Sensibilities* and the *Will*. ... Feeling deeply the want which has been spoken of, it seemed to me, early in my course, that something might be done toward remedying the deficiency, by preparing with care, and delivering to the classes, ... Gradually the lectures, thus prepared, came to take the place more and more of a text-book.” *Mental Philosophy*(1857), pp. iv~v. 이탤릭체는 원문에서 사용된 것이며, 번역문의 작은 따옴표는 필자가 강조를 위해 사용하였다.

12) “PREFACE”, “It is much easier to decide what a work on mental science ought to be, than to produce such a work. It should be comprehensive and complete, treating of all that properly pertains to Psychology, giving to every part its due proportion and development. It should treat the various topics presented in a thorough and scientific manner.” *Mental Philosophy*(1857), p. v.

고 그러한 주제를 과학적으로 다루면서, 기존의 정신철학을 개선하려 했던 자신의 강의가 발전되어 새로운 교과서 *Mental Philosophy*로 탄생된 것이다.

헤이븐의 ‘지능(intellect)’, ‘감정’, ‘의지’ 3분 체계의 ‘정신철학(Mental Philosophy)’은 스코틀랜드 철학의 계보를 이은 신학자·철학자이자 미국에서 최초의 심리학 교과서를 집필한 토마스 업햄(Thomas Upham, 1799~1872)의 *Elements of Mental Philosophy*의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진다.¹³⁾

스코틀랜드 철학은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스코틀랜드에서 유행한 철학으로 일반적으로 상식학과로 일컬어진다. 이 철학은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공통 의식으로서의 ‘상식(common sense)’을 궁극의 원리로 삼고, 학문적 인식의 기초, 진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 스코틀랜드 철학은 미국 사상에에도 이식되어, 미국에서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이라는 명칭 아래 가르쳐진다. 도덕철학은 1820년대에 ‘주지철학(intellectual philosophy)’과 ‘도덕철학’의 2개 부분으로 나뉘게 된다. 여기서 ‘주지철학’은 ‘지능’에 관한 영역만을 다루었는데, 업햄은 ‘지능’ 외에 ‘감정’과 ‘의지’를 추가하여 이 세 가지를 정신 혹은 마음의 요소로 보는 ‘정신철학’을 제시했다. 헤이븐은 지능의 영역에 다소 치우친 기존의 정신철학을 보완하기 위해 심리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채택하여, 더욱 완전한 정신철학 교과서를 만들고자 했다고 평가된다.¹⁴⁾

한편 ‘psychology’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 ‘psyche’(영혼, 정신)와 ‘logos’(학문)의 합성어로 알려져 있다. 이 어휘는 15~16세기경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라틴어 ‘psychologia’에서 파생되었는데, 독일과 영국의 철학자들을 통해 18세기 이후 점차 학문명, 혹은 정신철학의 한 분야로 자리를 잡아가게 된다. ‘psychology’는 그 과정에서 영국 스코틀랜드 학파에서 점차 ‘mental philosophy’를 대신하는 말

13) 토마스 업햄(Thomas Upham, 1799~1872)은 보든 칼리지(Bowdoin College)에서 정신 및 도덕 철학 교수로 재직했다. 그 역시 자신의 강의 노트를 정리하여 1827년 *Elements of Intellectual Philosophy*으로 출판했다. 그리고 1831년에 확장된 버전인 *Elements of Mental Philosophy*가 간행되었다. 그 내용은 주로 스코틀랜드의 능력심리학의 접근법을 취하면서 도덕성에 대해 논하는데, 지능, 감정, 의지 세 부분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업햄 관련하여 C. James Goodwin 저, 앞의 책(2004), 184~185쪽; Alfred H. Fuchs, “UPHAM, Thomas Cogswell (1799-1872)”, *Dictionary Of Modern American Philosophers*, Bloomsbury Publishing, 2005, pp. 2460~2466 참조

14) C. James Goodwin 저, 앞의 책(2004), 184~186쪽; 太田恵子, 「ジョセフ・ヘウン」, 『(通史) 日本の心理学』, 北大路書房, 1997, 26~27쪽.; Alfred H. Fuchs, 앞의 글(“UPHAM, Thomas Cogswell (1799-1872)”) 참조.

로서 권장된다. 다만 당시까지 심리학은 철학적 사변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으로 대체로 기독교의 사유와 일치했고, 인격수양적인 측면을 포함한 실천철학으로서의 측면 역시 지니고 있었다. 미국에서 ‘psychology’는 1940년경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여 헤이븐이 *Mental Philosophy*를 저술할 당시 ‘mental philosophy’와 점차 통용되어 사용되지만, 이때 심리학은 철학 및 신학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심리학 담당자는 목사 경험자가 많았다.¹⁵⁾

미국 심리학은 19세기 중반 이후에 실험과학으로서의 근대 신심리학으로 변모하게 된다. 헤이븐 이후 실용주의 철학자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와 독일에 유학하여 분트의 실험심리학을 배운 스탠리 홀(G. Stanley Hall, 1844~1924) 등의 활약에 의해 19세기 말경의 미국 심리학은 스코틀랜드 철학 계통의 능력심리학으로부터 실험실 기반의 새로운 신심리학으로 변모한다.¹⁶⁾ 헤이븐의 정신철학(Mental philosophy)은 철학적 심리학에서 근대의 실험과학적 신심리학으로 변모하기 전의 과도기적 성격의 정신철학 혹은 심리학이라 할 수 있다.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는 출간 후 당시 미국에서 여러 판을 거듭하면서 심리학 교과서로 널리 알려지고,¹⁷⁾ 더 나아가 서구의 정신철학 혹은 심리학 서적으로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니시 아마네와 중국의 옌용징에 의해 최초로 번역된다.

3. 니시 아마네의 『心理學』과 ‘心理學’·‘性理學’

일본에서 서구 심리학 관련 내용은 이미 메이지 유신 이전부터 들어와 있었고, 또 심리학 관련 용어는 서구 의학서나 자연과학서 그리고 사전류 등에 등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¹⁸⁾ 하지만 서구 심리학 서적을 처음으로 번역하

15) 佐藤達哉, 앞의 책(2002), 4~5쪽.; François H. Lapointe,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TERM “PSYCHOLOGY””, *Rivista Critica di Storia della Filosofia*, 28(2), APRILE-GIUGNO 1973, pp.138-160 참조

16) 제임스와 홀 이후 미국 심리학에 대한 내용은 C. James Goodwin 저, 앞의 책(2004), 187~212쪽, 222~223쪽. 참조.

17) *Mental philosophy*는 1857년에 초판이 출간된 후 여러 차례 재판(1872, 1873, 1876, 1879년 판 등)되면서 저명한 교과서가 된다. 楊鑫輝 編, 앞의 책(1991), 108~109쪽.

여 심리학 번역어 확립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은 니시 아마네다.

니시 아마네는 메이지 초기의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로, 서구의 ‘philosophy’에 대한 번역어 ‘철학’ 어휘를 만든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어려서 주자학을 공부했지만, 학문 탐구의 여정에서 주자학으로부터 소라이학(徂徠學)으로 전향하고, 이후 일본의 발전을 위해 양학(洋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자각한 후 소라이학에서 다시 양학 연구로 전향한다. 그리고 에도막부에 의해 네덜란드로 유학을 가게 되어 라이덴 대학의 피세링(S. Vissering, 1818~1888) 교수의 지도 하에 정치학, 법률학, 경제학 등을 배우고, 이외 공리주의와 실증주의 등 서양철학까지 공부한다.¹⁹⁾ 니시 아마네는 그 과정에서 ‘psychologie’(심리학)를 주요 테마로 하는 강의를 들은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때문에 그는 “유학자인 네덜란드에서 일본학자로는 심리학이라는 학문 및 사고방식에 대해 가장 먼저 배운 인물”로 평가된다. 니시 아마네는 귀국 후 1870년 11월경부터 도쿄 사설학교인 이쿠에이사(育英舎)에서 1년여간 진행한 철학 강의 ‘백학연환(百學連環)’에서 심리학 관련 강의를 행하고, 몇 년 후 번역서 『心理學』을 간행한다.²⁰⁾

니시 아마네의 『심리학』은 조셉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초판 1857) 1869년판을 번역한 것으로 동아시아 최초의 서구 심리학 번역서다.²¹⁾ 그의 번역서는 일본 문부성에서 간행한 것으로 처음에는 화장본(和裝本: 일본 전통 제본 방식) 『心理學』 3권(1875~1876)으로 출간되고, 이어서 양장본 『(奚般氏著) 心理學』 상·하 2권(1878~1879)으로 출판된다.²²⁾ 니시 아마네의 화장본 『심리

18) 가령, 1822년(文政 5) 간행된 『新修蘭日辞典』에는 현재의 “pneumatology”(영물학)에 해당하는 “pneumatica”의 번역어로 ‘心學’을 사용한다. 서양과학사상에 대해 약술한 『聞見漫録』(1835)에는 서양학문을 5가지로 분류하는데 네 번째 분류에 ‘精神學’이 등장한다. 원어는 불분명하지만 정신에 대한 학문이 서구 학문체계에 자리하고 있다고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에도막부에서 서양학 연구 최고기관인 洋書調所에서 1862년에 편집·간행된 영일사전 『英和対訳袖珍辞書』에는 ‘psychologist’와 ‘psychology’이 각각 “精心理論ズル人”(정심을 논하는 사람), “精心理論ズル學”(정심을 논하는 학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佐藤達哉, 앞의 책(2002), 24~26쪽.

19) 니시 아마네의 학문 역정과 관련하여 미야카와 토루, 아라카와 이쿠오, 『일본근대 철학사』, 생각의 나무, 2001, 40~46쪽 참조.

20) 佐藤達哉, 앞의 책(2002), 28쪽.

21) *Mental Philosophy* 초판은 1857년이다. 니시 아마네는 「心理學翻譯凡例」에서 1869년판을 사용하여 번역했음을 밝히고 있다. 『(奚般氏著) 心理学』 上冊, 文部省印行, 明治十一年, 1쪽.

22) 화장본 『심리학』 제1·2권은 1875년, 제3권은 1876년에 출판되고, 양장본 『(해반씨저) 심리학』 상권은 1878년, 하권은 1879년에 출판된다.

학』 제1권(1875)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단 책이다.²³⁾

니시 아마네가 헤이븐의 책을 번역하면서 사용한 ‘심리학’은 동아시아에서 ‘psychology’의 번역어로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그는 본래 이 어휘를 ‘psychology’의 역어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해반씨저)심리학』 상권, 「心理學翻譯凡例」에서 자신이 번역한 원서가 미국의 조셉 헤이븐씨(約瑟癸般氏)의 저술임을 밝히고 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서명은 *Mental Philosophy: Including Intellect, Sensibilities and Will*라는 제목으로, 지(智)·정(情)·의(意) 3부를 포괄하는 ‘심리철학’이라는 뜻으로, 지금 요약해서 ‘심리학’이라고 명명한다.²⁴⁾

니시 아마네가 사용한 ‘심리학’은 ‘mental philosophy’의 역어로서 ‘psychology’의 역어가 아니다. 헤이븐은 원서 본문의 “Introduction”, “Chater I”에서 ‘mental philosophy’의 통용어로 ‘psychology’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니시 아마네는 후자의 번역어로 ‘性理學’이란 어휘를 사용한다.²⁵⁾ 니시 아마네에게 있어 ‘심리학’은 ‘mental philosophy’의 번역어이고, ‘성리학’이 ‘psychology’의 역어였던 것이다.

사실 니시 아마네가 ‘psychology’의 역어로 사용한 ‘성리학’은 애초에 ‘이학’ ‘궁리학’ 등과 함께 ‘philosophy’을 가리키던 어휘 가운데 하나였다. 하지만 ‘philosophy’의 역어는 ‘希賢學’, ‘希哲學’을 거쳐 최종적으로 ‘哲學’으로 정착된다.²⁶⁾ ‘philosophy’의 역어가 ‘철학’으로 확정된 후 ‘mental philosophy’는 ‘심리철학’으로 번역되어 ‘심리학’으로 약칭되고, ‘psychology’의 역어로는 ‘성리학’이 채용된 것이다. 이렇게 서구의 philosophy, psychology에 대응하는 번역어의 변화는 동양의 儒學(특히 성리학)과 서구의 philosophy에 대한 니시 아마네의 사유의 변천 과정과 연관된다.²⁷⁾

23) 佐藤達哉, 앞의 책(2002), 20~21쪽.

24) 「心理學翻譯凡例」, “書名ハ「メンタル、フィロソフィーインクリューゲンク、インテルレクト、センシビリチース、エンド、井ル」ト題シ智情意三部ヲ包括セル心理哲學ト云フ義ナリ今約シテ心理學ト名ス。” 『(癸般氏著)心理学』 上冊, 文部省印行, 明治十一年, 1쪽.

25) 일례로, “Psychology as related to Theology.” (Mental philosophy, 23쪽)를 “性理學ノ神理學ニ、關係スルヲ論ス” (『心理学』 第一卷, 본문 19a쪽)으로 번역한다. *Mental philosophy*, 15~27쪽, 『心理学』 第一卷, 본문 1a~26b쪽 참조.

26) 미야카와 토루, 아라카와 이쿠오,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 나무, 2001, 46~47쪽.

27) ‘philosophy’의 번역어의 변천, 그리고 儒學과 philosophy에 대한 니시 아마네의 인

니시 아마네의 儒學과 洋學에 대한 시각은 네덜란드로 유학을 떠나기 전후로 차이를 지닌다. 그는 네덜란드 유학 직전에 친구에게 보낸 1862년 서간에서 ‘philosophy’를 유학처럼 理를 논하는 학문으로 여기고 이를 ‘서양의 성리학(西洋之性理之學)’이라 표현하며, 서양의 성리학이 전통 유학의 성리학보다 뛰어나다고 평가한다.²⁸⁾ 그는 네덜란드 유학 직전에 서구의 ‘philosophy’가 성리학보다 뛰어나다고 보았지만, 기본적으로 ‘philosophy’를 理를 논하는 성리학과 같은 학문으로 여기고 이를 ‘성리학’으로 표현했다.

니시 아마네는 네덜란드 유학 기간 피세링으로부터 性法學, 萬國公法學, 國法學, 經濟學, 政表學 등의 학문 5과를 수학하는 한편 서양철학과 심리학에 대해서도 탐구했다. 그는 이 기간에 서양의 philosophy와 동양의 儒學 사이의 이질성에 주목하고, 근본 취지에 있어 양자는 동일하지만, 발전양상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양자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식한다. 그는 당시 서양 philosophy를 선도하는 콩트의 실증주의가 일찍이 아시아에서는 보지 못한 것이라 여겼다. 그리고 philosophy와 유학 사이의 이질성은 귀국 후 집필한 『百一新論』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된다.²⁹⁾

1865년 12월에 니시 아마네는 일본으로 귀국하고, 1866년부터 1867년 사이에 대화형식으로 쓰인 계몽철학서인 『百一新論』의 초고를 집필한다. 이 책은 메이로쿠샤(明六社)가 결성된 1873년 말에 출판 허가를 받고 1874년에 상, 하 두 권으로 출판된다.³⁰⁾ 니시 아마네는 이 책에서 처음으로 ‘philosophy’의 대응어로 ‘哲學’을 사용한다. 철학과 관련하여 그는 『백일신론』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물리와 심리를 구별하는 일은 중요하고 또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 역사 등 모든 학문을 논하고 ‘物理’에 참고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心理’를 밝히고 天道와 人道를 규명하여 敎의 방법을 세우는 것을 히로소히ヒロソヒー(philosophy), 번역해서 ‘哲學’이라고 하여 서양에서도 예부터 논해져 왔습니다. 오늘은 “백교는 일치한다”라는 주제로 敎에 관하

식 변화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김성근, 「메이지 일본에서 ‘철학’이라는 용어의 탄생과 정착」, 『동서철학연구』 59, 2011, 371~4쪽 참조.

28) 김성근, 위의 논문(2011), 372쪽.

29) 상동.

30) 미야카와 토루, 아라카와 이쿠오, 앞의 책(2001), 46쪽; 니시 아마네 저, 허지향 역, 『백일신론』, 빈서재, 2020, 181쪽.

여 논했습니다만 이 또한 철학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철학상의 논의로는 物理도 心理도 함께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동해서도 안 되고요.³¹⁾

니시 아마네는 『백일신론』에서 제 학문을 종합하고 통일하는 학문으로서 철학을 구상한다. ‘모든 가르침(百教)’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취지로 귀착되는데, 철학은 바로 그러한 ‘백교’를 통일하는 근본의 학이 된다. 철학은 물리를 참고해서 “心理를 밝히고 天道와 人道를 규명하여 敎의 방법을 세우는 것”이다. 또 철학은 “백교를 개관하고, 그런 뒤에 종합 통일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통일 과학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갖추고 있다.”³²⁾ 그는 『백일신론』에서 ‘物理’와 ‘心理’를 구분하지 않은 채 하나의 ‘理’로 보는 전통 유교 사상(성리학, 주자학)을 비판하며, 물리와 심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함을 강조한다. 니시 아마네가 주자학의 ‘理’를 재해석하여 物理와 心理로 구분할 때, 그에게서 物理 관념은 서구의 과학 문명의 수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고 평가된다.³³⁾

‘philosophy’의 대응어로서 ‘哲學’은 『백일신론』에 처음 등장한다. ‘psychology’의 대응어로서 ‘성리학’이 사용된 정확한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백학연환』에서 ‘psychology’의 역어로 쓰이고 있다. 1870년 11월경부터 이쿠에이샤(育英舎)에서 진행한 ‘백학연환’은 서양의 학문을 분류하고 정리해서 소개한 철학 강의로서, 추후 동명의 책으로 출간된다.³⁴⁾ 『백학연환』에서는 몇 학문을 ‘보통학(普通學, Common Science)’과 ‘수별학(殊別學, Particular Science)’으로 구분

31) 大久保利謙 編, 『西周全集』 第一卷, 東京: 宗高書房, 昭和三十五年, 288~289쪽. 현 대일본어는 西周(著), 菅原 光·相原 耕作·島田 英明(訳), 『西周 現代語譯セクション』,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9, 181~182쪽. 번역은 허지향 역서 참조. 니시 아마네 저, 허지향 역, 위의 책(2020), 82~83쪽.

32) 미야카와 토루, 아라카와 이쿠오, 앞의 책(2001), 47~48쪽.

33) 상동, 49쪽.

34) 강의로 진행되었던 ‘백학연환’을 지금과 같이 정리된 문서로 남긴 것은 강의 청강생이었던 나가미 유타카(永見裕, 1839~1902)라는 인물이다. 1945년에 오쿠보 도시아키(大久保利謙, 1900~1995)는 니시 아마네가 남긴 문서들을 모아 『西周全集』 제1권(日本評論社)을 간행했는데, 이 때 오쿠보는 니시 아마네의 강의노트를 『백학연환각서』로 이름 붙이고, 나가미 유타카의 강의록은 『백학연환』으로 이름붙이고 『전집』에 수록했다. 『백학연환』에 대한 사항은 김성근, 『西周, 『百學連環』, 『개념과 소통』 10,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2, 397~408쪽 참조.

한다. 전문적 분야에 해당하는 수별학은 ‘심리상학(心理上學, Intellectual Science)’과 ‘물리상학(物理上學, Physical Science)’으로 구분되는데, 심리상학의 하위 분류에 ‘philosophy(哲學)’가 속해 있고, 철학의 하위 분류에 바로 ‘psychology(性理學)’가 속해 있다.³⁵⁾ 여기서 ‘psychology’의 역어로 ‘성리학’이 사용된 것이다.

‘psychology’의 역어로 사용된 ‘성리학’은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송명 유학을 염두에 둔 용어이다. 이는 니시 아마네가 ‘백학연환’ 강의 노트에서 ‘psychological’의 역어로 ‘性理學’을 기록하고 여기에 『중용』의 ‘天命之謂性’ 구절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³⁶⁾ 다만 그가 사용한 ‘성리학’ 용어는 전통 성리학의 함의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psychology’의 대응어로서 ‘성리학’ 어휘가 지닌 함의는 1873년의 저술 『生性發蘊』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생성발운』 제1권 제1편 본문은 “性理의 學은”이라 시작하고 있어,³⁷⁾ ‘psychology’에 대한 니시 아마네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데, 이 ‘性理의 學’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性理學은 영어의 ‘psychology’, 불어의 ‘psychologie’로서, 모두 희랍의 ‘psyche’ (즉) 魂 내지 心の 뜻과, ‘logy’ (즉) 論의 뜻에서 온 것이다. 다만 동양(東洲)의 ‘性理’라는 글자와 비교해 보면, (서양의) 그것은 오로지 靈魂의 體를 논하고, (동양의) 이것은 心性의 用을 논하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큰 요점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바로 ‘性理’라고 번역한다.”³⁸⁾

니시 아마네는 서양의 ‘psychology’는 ‘영혼의 실체’를 논하고, 동양의 성리학은 ‘심성의 작용’을 논한다고 본다. 그가 ‘psychology’의 대응어로 ‘성리학’(혹은

35) 『백학연환』 학문 분류와 관련하여 김성근, 위의 논문(2012), 399~400쪽 및 미야카와 토루, 아라카와 이쿠오,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 나무, 2001, 40~46쪽 참조.

36) 백학연환(百學連環)을 위한 강의 노트(메모)를 살펴보면, “psychological” 아래에 ‘性理學’ 또 그 아래에 ‘天命之謂性’ 이하의 『중용』 구절이 기록되어 있다. 佐藤達哉, 앞의 책(2002), 29~30쪽.

37) 『生性發蘊』, “性理ノ學ハ…”, 『西周全書』, 제1권, 29쪽.

38) 『生性發蘊』, “性理學ハ英語サイコロジ、佛語プシコロジニ共に希臘ノプシケー魂并ニ心ノ義ロジニ論ノ義ヨリ來ル者ナリ、只之ヲ東洲ノ性理ノ字ニ比スレハ彼ハ專ラ靈魂ノ體ヲ論シハ心性ノ用ヲ論スルノ差アリ、然モ大要相似タルヲ以テ直ニ性理ト譯ス”. 『西周全書』, 제1권, 30쪽.

‘성리’)을 사용한 것은 두 학문이 논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요점은 비슷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사실 송명 ‘성리학’에서는 ‘心性의 작용’만을 논하지 않는다. 성리학에서는 理氣心性의 體用을 모두 논한다. 니시 아마네가 서구 심리학을 ‘체’, 동양 성리학을 ‘용’으로 보는 것은, 동서 학문에 대한 그 자신의 사상이 투영된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니시 아마네가 ‘靈魂의 體’를 논하는 학문이란 의미에서 ‘psychology’를 ‘靈魂學’이라 하지 않고 ‘性理學’이라 했다는 점이다. 서구 철학과의 조우 속에서 ‘영혼’ 혹은 ‘정신’의 내용을 다루는 ‘psychology’의 역어로 ‘영혼학’을 취하지 않고, 널리 알려진 유교 전통의 ‘성리학’이란 용어를 취한 것은 일종의 ‘격의’의 방식을 취한 번역이다.³⁹⁾

‘psychology’에 대한 격의 방식의 번역과 달리 니시 아마네는 ‘philosophy’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어인 ‘철학’을 역어로 제시했다. 그는 ‘philosophy’를 유교 전통의 용어인 ‘理學’ ‘理論’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哲學으로 번역하여 동양의 유학과 구분한다고 명시한다.⁴⁰⁾ 그가 ‘philosophy’에 대해서는 전통 유학과 명확히 구분되는 신조어 ‘철학’이란 어휘를 사용하고, 『백학연환』에서 철학의 하위 분야에 속한 ‘psychology’에 대해서는 송명 유학을 뜻하는 ‘성리학’ 용어를 사용한 것은, 물리와 심리를 구분하지 않았던 유교(주자학) 전통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학적 체계를 세우려 했던 자신의 사상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앞서 니시 아마네는 『백학연환』에서 ‘物理上學’과 ‘心理上學’ 용어를 사용하여 제반 학문 체계를 설명했다. 여기서 ‘心理上學’은 ‘Intellectual Science’의 역어로서 ‘心理’는 ‘intellectual’에 대응된다. 『생성발운』에서는 “mental, intellectual”을 ‘心理’로 번역한다고 하고 있어,⁴¹⁾ 『백학연환』에서 이미 니시 아마네가 ‘mental’, ‘intellectual’의 역어로 ‘心理’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니시 아마네는 이상과 같은 전통 유학(특히 성리학)과 서구의 학문에 대한 사유의 변천 과정 속에서 ‘philosophy’, ‘psychology’, ‘mental’, ‘intellectual’ 등의 역어를 확정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셉 헤이븐이 제목으로 사용한 ‘mental

39) 격의의 방식은 원의에 대한 오해를 유발할 수 있지만, 서구 심리학을 잘 모르는 일본 독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

40) 그는 ‘philosophy’는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란 뜻으로 주돈이가 말한 ‘士希賢’으로서 후대에 습관적으로 理를 강론하는 학문을 가리키기에 ‘理學’ ‘理論’으로 번역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哲學으로 번역하여 동양의 유학과 구분한다고 말한다. 『西周全書』, 제1권, 31쪽.

41) 佐藤達哉, 앞의 책(2002), 31쪽.

philosophy'는 '심리철학'으로 번역되어 '심리학'으로 약칭되고, 원서 본문의 'psychology'는 '성리학'으로 번역된다. 니시 아마네의 『심리학』은 간행 이후 짧은 기간 동안 널리 읽힌다. 이후 1880년대에 헤이븐의 저술과 함께 베인(Alexander Bain, 1818~1903)⁴²⁾, 설리(James Sully, 1842~1923)⁴³⁾의 심리학서들이 번역되는데, 베인 저(著), 이노우에 데쓰지로(井上哲次郎, 1856~1944) 초역의 『倍因氏心理新説』이 발행된 후에는 베인의 역서가 널리 읽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번역서들을 통해 서구 심리학에 관한 지식은 일본에 더욱 알려지게 된다.⁴⁴⁾

니시 아마네는 'mental philosophy'의 역어로 '심리학', 'psychology'의 역어로 '성리학'을 사용했지만, 그 이후에는 '심리학'이 'psychology'의 역어로 정착하게 된다. 이러한 대응이 나타난 최초의 문헌은 1881년(메이지 14) 이노우에 데쓰지로 편찬의 『哲學字彙』로 알려진다. 다만 『철학자휘』 이후에도 'psychology'와 '심리학'의 대응은 오랫동안 확정되지 않고, '심리학'은 'psychology', 'mental philosophy', 'mental science', 'phrenics', 'meta-physics' 등의 역어로 사용되고, 'psychology'는 '심리학' 외에 '心性學', '精神學' 등으로 번역된다.⁴⁵⁾

'psychology'의 번역어가 '심리학'으로 정착되는 시기는 니시 아마네 번역의

42) 베인(Alexander Bain, 1818~1903)은 19세기 스코틀랜드 철학자이자 교육학자로, 심리학 언어학 논리학 윤리학 등의 발전에 기여했다. 주저로는 『감각과 지성』(1855), 『情動과 의지』(1859), 『심신론』(1872)이 있으며, 계보로서는 연합주의 흐름에 속한다. 1876년에 세계 최초의 심리학 잡지 Mind를 창간하는 등 초창기 심리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1882년 『倍因氏心理新説』(井上哲次郎 번역) 출간을 시작으로 1886년 『倍因心理全書』(松島剛 등 옮김), 1887년 『心身相關之理』(森本確也·谷本寓 訳), 1888년 『心理学』(矢島錦藏 번역) 등 6년 사이에 4권의 역서가 나온다. 베인 심리학은 모토라 유지로(元良勇次郎, 1858~1912)의 『심리학』이 1890년에 출판되기 전까지 일본 심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高砂美樹, 「アレキサンダー・ベイン」, 『(通史) 日本の心理学』, 北大路書房, 1997, 28쪽.

43) 설리(James Sully, 1842~1923)은 영국의 심리학자이다. 1898년 1월에 영국 런던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실험심리학 실험실을 열었다. 저서로 *Sensation and Intuition*(1874), *Illusions*(1881) 등이 있다.

44) 佐藤達哉, 앞의 책(2002), 48~50쪽.

45) 번역의 과정에서 'psychology'가 사용된 심리학서를 '심리학'으로 번역한 것은 1885(메이지 18)년의 有賀長雄, 『教育適用心理学』이 최초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책은 제임스 설리(James Sully, 1842~1923)의 『Outlines of Psychology』(1884년 간행)의 번역이지만, 실제로는 원저에 여러 학자의 설을 섞어 쓴 것이라 한다. 여기서 서명 가운데 'Psychology'가 '심리학'으로 번역되었다. 이상 太田恵子 「「心理学」と「psychology」」, 『(通史) 日本の心理学』, 1997, 24쪽, 39쪽.

『심리학』 간행 후 10년 전후인 1887년(메이지20) 경으로 알려진다. 당시 일부 사람들은 동아시아 전통의 불교나 유교의 입장에서 서구 심리학을 고찰하면서 ‘psychology’ 번역어로 ‘心學’ ‘心性學’과 같은 전통 성리학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근대 학문으로서 심리학이 보급되고 정착되면서 이러한 번역어는 점차 쇠퇴하고 ‘psychology’의 역어로 ‘심리학’이 자리하게 된다.⁴⁶⁾

4. 엔용징의 『心靈學』과 ‘心才學’·‘心靈學’

중국에서 서구 심리학의 초기 전파는 외국인 선교사와 그들이 설립한 교회 학교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교회 학교에서 심리학 교과 과정은 미국 장로회 선교사 머티어(Calvin Wilson Mateer, 1836~1908, 중국명: 狄考文)가 산둥 등주에 세운 등주문회관(登州文會館)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졌다.⁴⁷⁾ 이후 미국 성공회 선교사 셰르셰프스키(Samuel Isaac Joseph Schereschewsky, 1831~1906, 중국명: 施若瑟)가 상해에 설립한 성요한 서원(聖約翰書院)에서 심리학 과정이 개설되었고, 미국 공리회에서 하북 통주(通州)에 설립한 로하 서원(潞河書院)에서 선교사 세필드(Devello Zelotos Sheffield, 1841~1913, 중국명: 謝衛樓)가 교장으로 있을 때 심리학 과정이 이루어졌다. 서구 심리학은 이러한 초기 교회 학교의 교과 과정을 통해 처음으로 전파되었다.⁴⁸⁾

중국에서 서구 심리학 서적을 최초로 번역한 이는 성요한 서원에서 교수를 담당했던 성공회 초기 중국인 목사 엔용징(顏永京, 1839~1898)이다. 엔용징은

46) 太田恵子は 번역어 성립이 늦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로, 메이지 초기에 ‘psychology’ 서구에서도 학문으로서의 지위가 확립되지 않았기에 해외에서의 용어의 불안정성과 일본에서의 역어의 혼란이 겹쳐 번역어 확정이 늦었을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번역어가 정해지고 학교의 강좌명이나 학회명과 같은 조직이나 제도 속에 심리학이 도입된 이후로 이는 완전히 확정되었음을 지적한다. 이상 번역어 성립과 관련하여 太田恵子, 앞의 글(1997), 39~40쪽.

47) 머티어는 1864년에 산둥성 등주(登州)에 과정의 몽양학당(蒙養學堂)을 창건했다. 몽양학당은 1873년에 교과 과정을 확장시켜, 본래 있던 ‘비재(備齋: 小學 해당)’ 외에 ‘정재(正齋: 中學 해당)’ 과정을 추가했다. 그리고 1876년에 명칭을 등주문회관(登州文會館)으로 변경하고, 비재(備齋) 3년, 정재(正齋) 6년 두 학부의 9년 과정을 구성했다. 여기서 정재 제6년 교과에 ‘심령학’ 과정이 개설되었는데, 이는 중국 교육 시스템 가운데 가장 먼저 개설된 심리학 교과 과정이다.

48) 楊鑫輝·趙莉如, 앞의 책(1991), 101~105쪽.

어린시절 삼자경이나 사서 암송 등의 전통 교육을 받았지만, 1848년 성요한 서원의 전신인 교회 학교에 입학하고 이후 1854년(만 15세)에는 성공회의 지원 아래 미국 유학을 떠난다. 1857년에 오하이오 주 케니언 칼리지(Kenyon College)에 입학하여 4년 후(1861년)에 졸업한다. 엔용징은 졸업 전 1860년 가을 혹은 1861년 봄에 ‘정신철학(mental philosophy)’ 과정을 학습했는데, 이때 사용한 교재가 바로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였다. 이 과정을 공부한 이력이 이후 헤이븐의 책을 번역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⁴⁹⁾

엔용징은 1862년에 귀국하여 상해 영국 영사관과 문서국 등지에서 공직을 역임하다가 1868년武昌으로 이주하여 교회 선교 활동을 도왔다. 1871년에는 정식으로 목사로 임명되어 무창 문화학당(文華學堂)⁵⁰⁾을 건립하고 무창 일대에서 학생 지도와 선교 활동을 한다. 이후 1878년에 상해로 돌아와 성공회 주교 웨르체프스키와 함께 성요한 서원을 건립하고, 이곳에서 원장이 되어 원무와 수업을 겸하면서 심리학 교과 과정 등을 지도한다. 그는 성요한 서원에서 원무와 수업을 겸하는 과정에서 『肄業要覽』(1882), 『心靈學』(1889)⁵¹⁾ 등의 책을 번역 출판한다. 『심령학』은 엔용징이 성요한 서원에서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를 교재로 하여 심리학 강의를 진행하면서 원서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을 번역한 책으로,⁵²⁾ 중국 선교사들의 문화전파기구이자 교과서 편집기관인 ‘益智書會’⁵³⁾에서 1889년에 출간되었다.⁵⁴⁾

49) 楊鑫輝·趙莉如, 앞의 책(1991), 105~106쪽.; 閻書昌, 앞의 논문(2012), 116쪽.

50) 문화학당은 이후 文華書院, 文華大學, 華中大學 등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華中師範大學에 이른다.

51) (清)顏永京(譯), 『心靈學』, 益智書會, 光緒十五年. (이하 원문 인용시 『心靈學』으로 약칭)

52)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는 내용상 크게 서론 그리고 ‘지능(Intellect)’, ‘감정(Sensibilities)’, ‘의지(Will)’ 3부로 구성된다. 엔용징의 번역서는 전반부에 해당하는 서론과 ‘지능(Intellect)’ 부분에 대해서 번역한 것으로 상권에 해당한다. 하권은 간행하지 않았다.

53) 익지서회는 근대 중국 선교사들이 1877년 설립한 문화 전파 기구이자 교과서 편집 기관으로, 주요 구성원은 미국 선교사 마틴(W. A. P. Martin, 1827~1916, 丁體良), 윌리엄슨(A. Williamson, 1829~1890, 韋廉臣), 머티어(C. W. Mateer, 1836~1908, 狄考文), 알렌(Y. J. Allen, 1836~1907, 林樂知), 그리고 영국 선교사 프라이어(J. Fryer, 1839~1928, 傅蘭雅) 등 7명이다. 당시 중국 선교사들은 종파에 상관없이 학제적 규범과 교과서 집필, 서구 학문명의 번역 명칭 확정 등과 관련한 공통의 문제를 느꼈다. 이에 1877년에 상해에서 제1차 총회를 열어, 7명의 선교사들로 구성된 學校教科書委員會(혹은 學校與教科書委員會)를 구성했다. 1890년 제

엔용징은 서문에서 심리학 학습의 중요성과 번역 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진실로 그 뜻을 상세히 갖추어 학자들이 마땅히 이를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 서양의 학교의 사례는, 아동이 학업을 4년 동안 배워 말년에는 지식이 광대해진다. 그런 연후에 이에 종사한다. 나는 이전에 미국에 유학하여 일찍이 이 책을 읽어, 이 책이 유익함이 많고 좋은 점이 많음을 알았다. 이전에 성요한 서원에서 일찍이 날마다 대략 한문으로 번역하고 후학들에게 가르쳤는데, 학자들이 그 유익함을 얻은 것 같다. 나는 무릇 학업을 배우는 이들이 학문하는 근본을 세우고자 한다면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된다고 여긴다. 앞서 번역한 것을 애용하여, 말을 선별하고 뜻을 고찰하여 보완하고 편집하여 책을 만들어, 나는 ‘심리학’이라 하였다.⁵⁵⁾

엔용징은 자신이 심리학 번역서로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를 택한 것은, 미국 유학 시절 이 책을 바탕으로 심리학 강의를 들었을 때 그 내용이 좋았기 때문이며, 또 귀국 후 성요한 서원에서 이 책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강의했을 때 후학들이 유익함을 얻었기 때문이라 말한다. 이 외 엔용징은 서양에서 심리학을 논한 사람은 헤이븐 뿐만이 아니며 또 각각의 심리학자들의 논법도 다르지만 유독 그의 저술을 애용한 이유는 그가 논하는 바를 분명히 말하고 근거가 정확하고 자세하며 취한 내용들이 격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⁵⁶⁾⁵⁷⁾

2차 선교사 대회에서 위원회 명칭이 ‘中華教育會’로 바뀌고 중국 본토의 목사들 역시 수용하였다. 그리고 1905년에 ‘中國教育會’, 1916년에 ‘中華基督教教育會’로 바뀌었지만, 대외적인 호칭은 늘 ‘益智書會’를 사용했다. 대만 전자관 『教育大辭書』("http://terms.naer.edu.tw"), “學校教科書委員會” 항목 참조.

54) 楊鑫輝·趙莉如, 앞의 책(1991), 106쪽 및 孫小蕾, 앞의 논문(2019), 6쪽.

55) “夫固備詳其義, 學者當以之爲根本也, 西國書院主例, 童生肄業凡四年, 至季年知識宏開, 然後從事於此. 余昔游學美國曾讀之, 而知其書之裨益良多, 前在聖約翰書院曾逐日將大略翻譯敷文教授後學, 而學者似乎得其益處, 予以爲凡肄業者欲立爲學之本, 不可不讀是書, 爰將前譯者, 選詞考且, 補輯成書, 顏曰心靈學.” 『心靈學』, 「序」, 1a쪽.

56) “西國論心靈學者, 不一其人, 而論法各異, 於獨愛名儒海文氏之作, 議論風生, 考據精詳, 竊取以爲程式.” 『心靈學』, 「序」, 1b쪽.

57) 참고로 閻書昌은 엔용징의 번역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한다. 첫째는 새로운 지식 체계에 대한 민감성, 둘째는 종교 전파의 목적, 셋째는 헤이븐 원서가 수준이 높고,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閻書昌, 앞의 논문(2012), 117쪽.

외래어 번역은 원의를 적확하게 이해하는 동시에 기존 언어체계에서 상응하는 어휘를 찾거나 조합해야 하기에 적절한 번역어를 찾는 작업은 간단치 않다. 더불어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의 지적 토대에 따라 번역어는 달라진다. 이는 니시 아마네와 옌용징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mental philosophy’와 ‘psychology’에 대해 니시 아마네는 각각 ‘심리학’과 ‘성리학’으로 번역한 반면, 옌용징은 두 용어 모두를 ‘心靈學’으로 번역한다.⁵⁸⁾ 옌용징이 두 용어를 같은 어휘로 번역한 것은 미국 유학 당시 두 용어가 통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런데 옌용징의 ‘心靈學’ 어휘 선택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옌용징이 사용했던 역어는 ‘心才學’이었다.

옌용징은 성요한 서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스펜서(Herbert Spencer, 1820~1903)의 *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1861)⁵⁹⁾에 수록된 네 편의 논문 가운데 첫 번째 장을 번역하여 1882년에 『肄業要覽』이라는 명칭으로 간행한 바 있다.⁶⁰⁾ 『이업요람』은 근대 중국인이 독립적으로 번역한 서구의 인문사회과학 작품으로, 교육학 심리학 미학 역사학 등의 지식이 포함되어 당대 중국인들이 서구 인문사회과학을 살필 수 있는 창구를 열어준 번역서로 평가받는다.⁶¹⁾ 이 책에는 심리학 지식과 심리학이 교육에 응용되는 문제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옌용징은 여기서 ‘psychology’의 번역어로 ‘心才學’을 사용한다.⁶²⁾

옌용징이 ‘psychology’를 ‘心才學’으로 번역한 계기는 분명치 않다. 다만 “서

58) 헤이븐은 본문 Introduction의 Chapter I에서 ‘Mental philosophy’의 통용어로서 ‘psychology’를 사용하는데, 옌용징은 이 역시 ‘心靈學’으로 번역하고 있다. 일례로, “Psychology as related to Theology.”(*Mental philosophy*, 23쪽)를 “心靈學與天道學有關涉”(『心靈學』, 본문 6b)으로 번역한다. *Mental philosophy*, 15~27쪽, 『心靈學』 본문 1a~9a쪽 참조.

59) Herbert Spencer, *Education: Intellectual, Moral, and Physical*, London : Williams and Norgate, 1861.

60) 스펜서의 *Education*은 총 4 챕터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옌용징이 번역한 것은 첫 번째 챕터인 “What knowledge is of most worth”이다. 옌용징은 번역과정에서 원래의 저작 가운데 필요없다고 생각한 부분은 일부 생략했다. 그는 서문에서 이 책을 번역한 이유에 대해 당시 실용적이지 못한 중국에서 학문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번역했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肄業要覽』 해제(오병한) 참조.

61) 孫小蕾, 「顏永京: 興學報國的譯才」, 『自然辯證法通訊』 42(4), 2020(4), 123쪽.

62) 참고로 ‘Intellect’의 번역어로 ‘資性/心才’, ‘Mind’의 번역어로 ‘心才/心’, ‘Science of mental’의 번역어로 ‘心性學’을 사용하고 있다. 閻書昌, 앞의 논문(2012), 117~118쪽.

양 학자들에 따르면, 몸은 유형의 사지를 갖추고 있고, 사지는 각각 그 작용이 있다. 마음은 무형의 심재(心才: 마음의 재능)가 있고, 심재 역시 각각 그 작용이 있다. 형체가 하나뿐이 아니듯이 심재 역시 하나뿐이 아니다. 심재의 핵심은 바로 지각, 보기, 듣기, 냄새 맡기, 경험, 탐색, 기억, 상상, 사려, 헤아림, 판단 등이다. 몸을 기르고 지키는 방법은 옷과 음식을 취하고 무예를 익히는 것이요, 심재를 단련하는 방법은 바로 ‘학문을 익히는 것(肄業)’이다.”⁶³⁾는 본문 주석에 달린 엔용징의 언급을 통해, 그에게 ‘心才’란 마음의 다양한 기능 혹은 재능, ‘心才學’이란 마음의 기능, 재능에 대한 학문을 뜻하는 어휘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엔용징은 『이업요람』(1882) 번역 당시 번역어 선택이 아직 성숙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번역한 것을 애용하여, 말을 선별하고 뜻을 고찰하여 보완”⁶⁴⁾했다는 서문 내용을 고려하면, 그는 『심령학』(1889)을 번역할 때 번역어 선택과 통일에 매우 신중을 기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엔용징은 『심령학』에서 일부 용어에 대해서는 『이업요람』의 번역어를 사용치 않고 새로운 역어를 사용한다.⁶⁵⁾ ‘心靈學’ 번역어 역시 그러한 작업의 결과이다.

엔용징이 번역어 선택에 주의를 기울이며 기존 역어를 보완한 데에는 1886년 ‘익지서회’ 교과서 편집작업의 참여가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익지서회는 머티어, 마틴, 알렌 등의 선교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상해에서 1877년 설립된 문화 전파 기구이자 교과서 편집기관이다. 익지서회는 설립시부터 서구 학문명의 번역 및 용어의 통일을 위해 노력했는데, 엔용징은 1886년에 익지서회의 교과서 편집작업에 참여했다. 이러한 교과서 편집 작업은 적합하고 통일된 번역어를 선택하는 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⁶⁶⁾

결국 ‘심령학’이라는 어휘는 단기간에 선택된 역어가 아닌 장기간의 신중한 번역작업의 결과물이다. 엔용징이 ‘psychology’의 역어를 ‘심재학’에서 ‘심령학’

63) “按西士，身具有形之肢體，肢體各有其用。心有無形之心才，心才亦各有其用。形體不止一，心才亦不止一。心才之要者，即悟·視·聞·臭·嘗·摸·記·像·思·度·斷等。養身衛身之計，即衣食·習武藝，練心才之計，即肄業。”(清)東山書局輯，《新輯各國政治藝學全書》(清光緒二十八年(1902)，上海東山書局石印西學政教工藝分類叢書本) 43쪽.

64) “愛將前譯者，選詞考且，補輯成書。”『心靈學』，「序」，1a쪽.

65) 일례로, Feeling은 ‘心懷’에서 ‘心動’, Intellect는 ‘資性/心才’에서 ‘智’, Sensation은 ‘覺’에서 ‘微覺’ 등으로 번역어가 바뀐다. 이와 관련하여 閻書昌, 앞의 논문(2012), 118쪽 참조.

66) 閻書昌, 앞의 논문(2012), 119쪽.

으로 바꾼 까닭은 분명치 않지만,⁶⁷⁾ 신학자로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경험과 익지서회 선교사들과의 작업이 핵심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옌용징은 미국 유학 시절 신학을 공부하며 헤이븐의 심리학 수업을 들었다. 그는 수업을 통해 니시 아마네처럼 ‘psychology’ 원의가 그리스어 ‘psyche’와 ‘logos’임을 알았을 것이다. 전통 유학을 바탕으로 양학을 익혀 ‘psychology’를 유교 용어로 번역한 니시 아마네와 달리, 옌용징은 어릴 적부터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였기에 ‘psyche’의 원의와 유사한 ‘심령’이란 어휘를 가장 적합하게 여겼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심령학』 서문에서 “사람은 만물의 영장(靈)”으로 정욕과 의지가 있어서 서양 학자들이 “사람은 모두 심령이 있다”고 말하고, 또 ‘心靈學者’란 바로 ‘심령’이 무엇이고 그 작용이 무엇인지를 전문적으로 논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다.⁶⁸⁾ 이는 ‘psyche’의 원의에 바탕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번역어 ‘심령학’은 익지서회의 일부 선교사들이 공유했던 역어일 수 있다. 옌용징에 앞서 선교사 머티어는 등주문회관에서 1876년에 ‘心靈學’이란 명칭의 심리학 교과 과정을 개설했었다. 1877년 상해에서 ‘익지서회’가 결성될 때, 옌용징은 머티어, 마틴과 함께 위원회 멤버로 참여했기에 그는 머티어로부터 ‘심령학’ 과정을 들었을 것이다.⁶⁹⁾ 익지서회 선교사들이 서구 학문명의 번역과 용어 통일에 노력을 기울였고, 옌용징이 역시 여기에 참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령학’ 역어는 당시 일부 선교사들이 공유하던 역어였을 가능성이 있다.

옌용징의 ‘심령학’ 역어는 동아시아인이 서구 심리학을 번역할 때 보이는 일반적인 형태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19세기 말 일본으로부터 ‘心理學’ 역어가 수

67) 汪鳳炎은 ‘심령학’ 번역 이유로 다음을 제시한다. ① ‘심령학’은 심리학의 그리스어 원의 즉 ‘영혼학’이란 뜻에 근본하고, ② 서문에서 人爲萬物之靈, 人有心靈을 강론 하기에 심령학이라 번역했고, ③ 중국 古籍을 살펴서, ‘心’, ‘性’의 정신에 대한 것을 ‘심령’이라 통칭하고, 심령학이라 번역했으며, ④ 옌용징은 狄考文과 마찬가지로 선교사로서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티어의 번역법을 인정하기 쉽다.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心理學探新』 35(3), 2015, 197쪽.

68) “蓋人爲萬物之靈, 有情欲, 有志意, 故西土云人皆有心靈也。人有心靈而能知, 能息, 能因端而啓悟, 能喜憂, 能愛惡, 能立志以行事, 夫心靈學者, 專論心靈爲何及其諸作用。” 『心靈學』, 『序』, 1a쪽.

69) 머티어는 1873년에 등주 몽양학당 교과 과정을 비재(소학, 3년), 정재(중학, 6년) 두 학부로 확충하고 1876년 명칭을 등주문회관으로 변경했다. 1876년 중학 졸업생에게 준 졸업장을 통해 당시 ‘心靈學’ 과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국 교육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개설된 심리학 교과과정으로 알려진다. 楊鑫輝·趙莉如, 앞의 책(1991), 101~103쪽 및 汪鳳炎, 앞의 논문(2015), 197쪽 참조.

용되어 널리 사용되기 전까지 심리학 관련 역어로 ‘性理學’ ‘心才學’ ‘心靈學’ ‘性學’ ‘心學’ ‘心理(學)’ 등의 다양한 용어가 등장했다.⁷⁰⁾ 이 중 ‘성리학’ ‘심학’ ‘성학’ ‘심리’ 등의 어휘는, 니시 아마네가 ‘성리학’을 ‘psychology’의 역어로 사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통 유교 용어를 대역어로 취한 것이다. 반면 ‘심령학’ 용어는 ‘psychology’ 원의에 좀 더 충실한 어휘로, 연용징의 지적 토대가 유교가 아닌 신학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연용징의 『심령학』은 출간 후 일부 지식인들의 호평을 받으며 중국 내 서구 심리학 수용에 영향을 끼친다.⁷¹⁾ 하지만 이후 20세기에 들어서 일본 학자 초빙에 의한 심리학 강학, 대량의 일본 심리학서의 번역, 재일학자들의 심리학서 편찬과 사범생들의 일본 교원 수업 내용 정리 편찬 등, 20세기 초엽 중국에서의 심리학 서적의 편찬과 이해는 일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⁷²⁾ 이와 더불어 ‘psychology’에 대한 역어는 ‘심령학’에서 니시 아마네가 사용한 ‘심리학’으로 바뀌게 된다. 1896~7년 경 강유웨이(康有爲, 1858~1927)에 의해 ‘심리학’ 어휘가 제시되고, 1902년 량치차오에 의해 ‘psychology’는 ‘심리학’, ‘philosophy’는 ‘철학’이라는 일본의 역어가 명확히 제기된 이후, ‘심리학’은 ‘psychology’ 역어로 정착된다.⁷³⁾

70) 1898년 康有爲에 의해 명확히 ‘心理學’이 언급되어 사용되기 전까지 性理學(眞實居士, 1872), 心才學(顏永京, 1882), 心靈學(Mateer, 1876; 顏永京, 1889), 性學(丁龍良, 1898), 心學(嚴復, 1895), 心理(學)(執權居士, 1872; 嚴復, 1898) 등이 사용되었다. 汪鳳炎, 앞의 논문(2015), 195~197쪽.

71) 汪鳳炎, 앞의 논문(2015), 197쪽, 孫小蕾, 앞의 논문(2019), 89~91쪽.

72) 楊鑫輝·趙莉如, 앞의 책(1991), 134~137쪽.

73) 1896~7년 경 간행된 강유웨이(康有爲, 1858~1927)의 『日本書目志』에 ‘심리학’이란 명칭과 함께 25종의 심리학서를 나열하는데, 여기에 이미 니시 아마네의 해반씨 『심리학』이 적혀 있다. 1897년 량치차오(梁啓超, 1873~1929)는 『讀<日本書目志>後』에서도 ‘심리’라는 명칭이 나타난다. 이후 등장한 심리학 교과서와 심리학 강의에서는 ‘心理學’이란 명칭이 사용되어 1902년 이후에는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당시 ‘philosophy’와 ‘psyohology’ 두 단어에 대해 명확한 구분과 통일된 번역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량차차오는 1902년 『新民叢報』 18호의 “紹介新著”에서 “일본인은 영어 ‘psychology’를 ‘심리학’, ‘philosophy’를 철학으로 번역한다.”며 명확히 번역어를 구분한다. 그 이후 ‘심리학’은 ‘psychology’ 역어로 완전히 정착되게 된다. 楊鑫輝·趙莉如, 앞의 책(1991), 142~144쪽.

6. 결론

서구 심리학의 동아시아 유입 초창기, 과연 동아시아인은 전통 유교의 사유와 다른 서구 심리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가. 19세기 후반 일본과 중국에서의 서구 심리학서에 대한 최초의 번역은 유교 전통에 속해 있던 동아시아인이 서구 심리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동아시아에 처음 번역된 서구 심리학서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1857)이다. 헤이븐은 당시 심리학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채택하여 기존의 정신철학을 보완한 교과서로서 *Mental philosophy*를 저술하였다. 헤이븐의 정신철학은 철학적 심리학에서 근대의 실험과학적 심리학으로 변모하기 전의 과도기적 성격의 심리학으로, 당시 심리학은 정신 혹은 도덕 철학과 같은 철학의 분야에서 아직 독립되지 않았다. 동아시아에 처음 수입된 서구 심리학은 정신철학으로서의 심리학이었다.

동아시아에서 조셉 헤이븐의 *Mental Philosophy*는 일본의 니시 아마네에 의해 최초로 번역된다. 니시 아마네의 역서 『心理學』(1875~76)은 동아시아 최초의 서구 심리학 번역서이자, 일본에서 처음으로 ‘심리학’이라는 제목을 단 책이다. 니시 아마네가 사용한 ‘심리학’은 ‘psychology’의 번역어로 현재 널리 사용되지만, 애초 ‘심리학’은 ‘심리철학’의 약칭으로서 ‘mental philosophy’의 역어이고, ‘性理學’이 ‘psychology’의 역어였다. 더불어 ‘심리학’과 ‘성리학’은 처음부터 정해진 역어가 아니었다. 이 용어들은 니시 아마네가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가는 과정에서 성립된 역어로 ‘성리학’은 본래 ‘philosophy’의 역어였다. 하지만 니시 아마네는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 서양의 philosophy와 동양의 儒學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인식한 후 ‘philosophy’의 대응어로 ‘哲學’을 사용하고, ‘psychology’의 대응어로 ‘성리학’을 사용한다. 그는 ‘psychology’에 대해 그리스어 원의에 해당하는 역어를 취하지 않고 ‘성리학’이란 용어를 취했는데, 이는 일종의 ‘격의’ 방식을 취한 번역이다.

중국에서 *Mental Philosophy*는 옌용징에 의해 『心靈學』(1889)로 번역된다. 옌용징의 『심령학』은 헤이븐의 책을 교재로 ‘정신철학’ 과정을 학습했던 미국 유학 시절의 경험과 귀국 후 이 책을 바탕으로 성요한 서원에서 행한 강의와 번역 작업이 집적되어 완성된 것이다. 니시 아마네와 달리 옌용징은 ‘mental philosophy’와 ‘psycholgoy’ 모두를 ‘심령학’으로 번역한다. 옌용징이 애초에 ‘psycholgoy’ 역어로 사용했던 어휘는 ‘心才學’이었다. ‘심령학’은 그가 “앞서 번

역한 것을 애용하여, 말을 선별하고 뜻을 고찰하여 보완”한 작업의 결과였다. 엔용징의 ‘심령학’ 역어 선택에는 신학자로서 미국 유학을 다녀온 경험과 익지사회 선교사들과의 작업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엔용징의 ‘심령학’은 ‘psycholgoy’ 원의에 좀 더 충실한 역어로서 신학이라는 그의 지적 토대가 반영된 역어이라 할 수 있다.

니시 아마네는 전통 유교 사상을 토대로 서구 심리학을 비교 해석하고 번역어를 선택한다. 반면 엔용징은 선교사로서 신학을 지적 배경에 두고 심리학을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번역어를 채택한다. 니시 아마네와 엔용징의 방식은 수용자 혹은 번역자의 학적 토대에 따라 역어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시 아마네의 『심리학』 이후 일본에서는 서구의 심리학서들이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나아가 근대 학문으로서 신심리학이 점차 보급되고 정착된다. 그 과정에서 전통 유학의 용어를 사용한 번역어는 점차 쇠퇴하고 ‘심리학’이 ‘psychology’의 역어로 자리하게 된다. 중국에서는 19세기 말 Kang Wei와 Qiang Chao 등의 노력으로 일본의 역어 ‘심리학’ 어휘가 수용되어 20세기 초부터 널리 사용되게 된다. 이같이 ‘심리학’ 용어가 완전히 정착되기 이전까지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性理學’ ‘性學’ ‘心學’ ‘心性學’ 등을 번역어로 선택하는데, 이는 전통 유학의 사유방식과 어휘로 ‘mental philosophy’와 ‘psychology’를 수용하고 이해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위진시기 ‘격의’ 불교처럼 외래 사유를 처음 접하던 시기에 주로 행해지던 수용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大久保利謙 編, 『西周全集』 第一卷, 東京: 宗高書房, 昭和三十五年.
2. 『心理学』 第一·二卷, 文部省, 明治八年.
3. 『心理学』 第三卷, 文部省, 明治九年.
4. 『(奚般氏著)心理学』 上冊, 文部省印行, 明治十一年.
5. 『(奚般氏著)心理学』 下冊, 文部省印行, 明治十二年.
6. 『心靈學』, 益智書會, 光緒十五年.
7. 『肄業要覽』 (清) 東山書局輯, 《新輯各國政治藝學全書》, 上海東山書局石印西學政教工藝分類叢書本, 清光緒二十八年.
8. Joseph Haven, *Mental Philosophy: Including the Intellect, Sensibilities, and Will*, Gould and Lincoln, 1857.
9. 니시 아마네 저, 허지향 역, 『백일신론』, 빈서재, 서울, 2020.
10. 동의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편, 『근대번역과 동아시아』, 박문사, 서울, 2015.
11. 미야카와 토루·아라카와 이쿠오 엮음, 이수정 옮김, 『일본근대철학사』, 생각의 나무, 경기, 2001.
12. 오세진 외, 『인간행동과 심리학』, 학지사, 서울, 2005.
13. 윤가현 외, 『심리학의 이해』 (제5판), 학지사, 서울, 2020.
14. 한국심리학회 편, 『한국심리학회 50년사』, 교육과학사, 서울, 1996.
15. 한덕웅, 『한국유학심리학 : 한국유학의 심리학설과 유교문화에 관한 심리학적 접근』, 시그마프레스, 서울, 2003.
16. C. James Goodwin 저, 박소현·문양호·김문수 옮김, 『현대심리학사』, 시그마프레스, 서울, 2004.
17. D. Brett King, Wayne Viney, William Douglas, 임성택·안병희 옮김, 『심리학사 (사상과 맥락)』, 교육과학사, 서울, 2009.
18. Nolen-Hoeksema 외 지음, 정영숙 외 옮김, 『(엡킨슨과 힐가드의) 심리학 원론』 (제16판), 박학사, 서울, 2017.
19. John R. Shook, *Dictionary Of Modern American Philosophers*, Bloomsbury Publishing, 2005.
20. 楊鑫輝·趙莉如 主編, 『心理學通史 第2卷 : 中國近現代心理學史』, 山東教育出版社, 1991.
21. サトウタツヤ, 高砂美樹, 『流れを読む心理學史』, 有斐閣, 2003.
22. 西周 著, 菅原光·相原耕作·島田英明 訳, 『西周 現代語譯セレクション』, 慶應義塾大學出版會, 2019.
23. 佐藤達哉 編, 『(通史) 日本の心理学』, 北大路書房, 1997.
24. 佐藤達哉, 『日本における心理学の受容と展開』, 北大路書房, 2002.

25. 김성근, 「“철학”이라는 일본어 어휘의 조선 전래와 정착」, 『동서철학연구』 제69호, 한국동서철학회, 2013.
26. _____, 「19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科學概念と自然觀の變容」, 『東京大學大學院綜合文化研究科』, 2004.
27. _____, 「니시 아마네(西周)에 있어서 “리(理)” 관념의 전회와 그 인간학적 취약성」, 『大東文化研究』 제73집, 대동문화연구원, 2011.
28. _____, 「니시 아마네(西周)의 과학개념 - ‘學’, ‘物理’, ‘格物’을 중심으로 -」, 『동서철학연구』 제73호, 한국동서철학회, 2014.
29. _____, 「메이지 일본에서 “철학”이라는 용어의 탄생과 정착 -니시 아마네(西周)의 “유학”과 “philosophy”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59호, 한국동서철학회, 2011.
30. _____, 「西周, 『百學連環』, 『개념과 소통』 10,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2.
31. 박효경, 「니시 아마네(西周)의 『百一新論』에 나타난 近代 日本語의 諸 問題」,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2.
32. 오병한,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肄業要覽』 해제.
33. 한규석, 「한국적 심리학적 전개 현황과 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21집 제2호, 한국심리학회, 2002.
34. 허지향, 「메이지명치(明治) 일본에 있어서 “철학” 개념의 역사적 위치 -니시 아마네의 텍스트 재고, 『철학회잡지』 고찰」, 『人文學誌』 44, 2012.
35. 劉海平, 任澤湘, 譚玉茸, 「關於幾個重要心理學術語的翻譯問題」, 『鄖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04(03), 2003.
36. 孫小蕾, 「顏永京對近代西學傳播的貢獻」, 『國際漢學』 2019(04), 2019.
37. 閻書昌, 「顏永京對西方心理學引入及其漢語心理學術語創制」, 『南京師大學報』 2012(04), 2012.
38. 汪鳳炎, 「漢語“心理學”一詞是如何確立的」, 『心理學探新』 35(3), 2015.
39. 王成禮, 「中文心理學術語特點和英譯策略」, 『中國科技術語』 2013(04), 2013.
40. 趙莉如, 「關於“心理學”名稱在中國何時開始使用問題的修正和補充」, 『心理學報』 1992(2), 1992.
41. _____, 「心理學在中國的發展及其現狀(上)」, 『心理學動態』 4(1), 1996.
42. _____, 「心理學在中國的發展及其現狀(下)」, 『心理學動態』 4(4), 1996.
43. _____, 「有關心靈學一書的研究(1)」, 『心理學報』 1983(4), 1983.
44. SATO Tatsuya, 「近代日本における心理學の受容と制度化」, 『立命館人間科學研究』 5, 2003.
45. 菅野 幸恵, 「明治・大正期の日本における西洋の心理学の受容と展開(キリスト教と文化(5))」, 『青山学院女子短期大学総合文化研究所年報』 15, 青山学院女子短期大学総合文化研究所, 2007.

46. François H. Lapointe,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TERM "PSYCHOLOGY"", *Rivista Critica di Storia della Filosofia*, 28(2) APRILE-GIUGNO 1973.

[Abstract]

The acceptance of Western psychology by East Asians in the late 19th century : Nishi Amane (西周) and Yan Yongjing (顏永京)'s Translation of "mental philosophy" and "psychology"

Lee, Dae-Seung(Jeonju Univ.)

This article explored the aspects of East Asians' acceptance of Western psychology in the late 19th century, focusing on translations of Nishi Amane and Yan Yongjing about Joseph Haven's writings, *Mental Philosophy* (1857).

The first Western psychology book translated into East Asia is Joseph Haven's *Mental Philosophy*. The book is translated by Nishi Amane of Japan under the title *Shinrigaku* 心理學 (1875-76). This book is the first Western psychological translation of East Asia, where the term "心理學" is now widely used as a translation of "psychology". However, the term "心理學" used by Nishi Amane was originally an abbreviation for "Shinri philosophy 心理哲學", which was the term for "mental philosophy", "Senligaku 性理學" was the term for "psychology". Joseph Haven's book is translated into *Xinling xue* 心靈學 (1889) by Yan Yongjing in China. At this time, Yan Yongjing translated both 'mental philosophy' and 'psychology' into "Xinling xue 心靈學." Based on traditional Confucian ideas, Nishi Amane compared and interpreted Western psychology and chose a translation, Yan Yongjing, as a missionary, put theology in an intellectual background and understood Western psychology and adopted an appropriate translation. The cases of Nishi Amane and Yan Yongjing show that the choice of the terms depends on the academic foundation of the acceptor or translator.

After Nishi Amane's *Shinrigaku* 心理學, psychology as a modern science gradually spread and settled in Japan, in which the term "心理學" became the accepted translation for "psychology." In China, the Japanese term "心理學" was accepted and widely used after the end of the 19th century.

Keywords: Joseph Haven, mental philosophy, psychology, Nishi Amane 西周,
Yan Yongjing 顏永京, Shinrigaku, Xinli xue 心理學, Xinling xue 心靈
學

- 이 논문은 2020년 11월 20일 접수되고
2020년 12월 21일 심사가 완료되어
2020년 12월 23일 게재가 확정되었습니다.